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함께 기도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를 방역강화로 20일부터 24일까지 단축 변경합니다.
성찬키트는 23일(목)과 24일(금) 오후에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별도의 안내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 성탄축하예배는 25일(토) 오전 11시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세례(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 문답은 24일(금) 오후 4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오늘 예배후에 역할공동체별로 모여 실행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어서 공동체운영위원회가 모입니다.
- 성탄축하예배 후에 임시 총회로 조직을 승인합니다.
- 김영동 전경희 집사님 가정이 지난 10일 그루터기로 이사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9 호

2021년 12월 1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다림

하루 동안 해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의 얼굴이 있다면 아마 저녁 하늘을 발갛게 물들이는 노을일 것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보면 노을은 '해가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는 표시로 산들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거'라고 합니다.

한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달이 있다면 단연 12월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에 자신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전하는 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12월은 노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아줘. 기억하고 기다려줘.'

대강절.. 기다림... 생각 만해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가슴 설레게 하는 것 일진데 우리 삶의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큰 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오랜 세월 기다렸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대를 이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잘 알려진 기다림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 기다림에 대해 절실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가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고생을 해서 온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이 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병자는 오직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한달... 1년.. 이제는 몇 해가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오랜 세월을 이 못에 있는 행각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천사가 내려와 주기만을.. 그리고 자신을 이 못에 처음으로 넣어 줄 사람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자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났다고보다는 이 분이 찾아와 주신 거죠.

이분을 본 순간 병자는 알았습니다. 천사보다 더 큰 분이시구나.

그리고는 병자는 또 기다립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아니 찰나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하신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말이죠. 38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던 이 병자의 삶에, 그 긴 기다림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병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병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병으로 오랜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 이 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리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실 수 있는 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 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누가복음 11장 29-54절
제목 : 예수께서 악한 세대를 비판하시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12 123 126 421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29절~32절 <악한 세대를 비판하시다>
33절~36절 <등불의 비유>
37절~44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다>
45절~54절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다>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께서서는 악한세대를 비판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지나친 형식주의는 자기 주장에 매여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법 아래에 묶어두어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악한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 ② 지나친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본을 보입시다.

내게 중요한 것

주님, 당신이 12월에 나셨는지 3월에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나사렛에서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자들을 찾아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원천리 찾아가 주님을 뵈는 것도 황공한데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다니요!
화려한 궁전과 장엄한 성전을 외면하고
초라한 저희 집에 오셨다니요!
영원한 당신이 먼지로 돌아갈 육신을 입으셨다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저를 위한 일이었다니요!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 9 : 2, 6

25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11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 25 : 1-13

116, 123

“ 슬기로운 신앙생활 ” 권재만목사

설교자
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88

455(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늘나라는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으로 자주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받은 어리석었고 받은 슬기로웠습니다. 그 기준은 등불이 아닌 기름의 양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등불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들러리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들. 이 비유에 나오는 들러리들은 신부 측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은 저녁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때, 들러리들은 준비하였던 등잔에 불을 붙이고 신랑과 신부를 예뻐하며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가셨으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충분한 양의 기름이 없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의 들러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슬기롭게 나의 역할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즐겁게 맞이하며 잔치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일주일 만에 꾸러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일주일 동안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온 친구도 있고 열심히 연습해서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게 된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음률놀이 시간에는 성탄찬양에 맞추어 트라이앵글과 방울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예뻐서 신나게 마구 두드리고 흔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서 멋지게 연주를 해냈습니다.

꾸러기들을 위한 “착한 구두장이 부부와 요정” 연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 고모 등 꾸러기 가족들이 12월 초부터 대본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맡고 무대 배경을 그리고 소품, 음향 등등 모든 준비를 직접 하느라 공을 많이 들인 선물이었습니다. 올해는 가정수가 적어 출연진이 부족해서 교사들도 살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섯 살 꼬끼리 반에는 아직 어려서 연극이나 영화를 좀 무서워하는 꾸러기도 있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끝나고 물어보니 아주 조금 무서웠지만 괜찮았다고 대답합니다. 덕분에 ‘연극’이라는 것에 꾸러기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다시 등교수업을 시작했습니다. 3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마치 오랜 방학을 끝내고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 얼굴이었는지 모릅니다. ^^

이번 주에는 중요한 학년말 발표회와 학년말 피드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 할 예정이었다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배움과 가르침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시청할 때 화면으로 나오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숨어서 관람했다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눌 수 없어서 각 가정에 치킨 기프트콘을 선물해주시는 센스를 보여주셨지요.

마지막 피드백 시간도 1년간 함께 지낸 반과 학년 친구들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도 힘든 피드백 시간을 척척 해내는 어린이들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아직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일주일간의 면담이 남아있지만 어린이들을 금요일을 시작으로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하여 자유롭게 지낼 순 없겠지만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 보내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에 멋쟁이학교에서는 학기말 부모님 면담으로 지냈습니다.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이 한 자리에 앉아 1년을 마무리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곳에는 감사도, 눈물도, 기대도, 애정도, 깨달음도, 그리고 은혜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멋쟁이학교에 입학하여 멋쟁이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거듭되는 만남 속에서 가정과 학생과 선생님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배움을 얻고 성숙도를 더해갑니다. 그렇게 뒤돌아보고서 성장했음을 깨달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몰려오곤 합니다. 올해의 면담 또한 학생의 성장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물심양면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부모님들, 함께 힘내서 걸어왔던 멋쟁이들, 맛있는 밥으로 웃음을 주신 하늘주방 식구들, 알게 모르게 기도와 섬김으로 도와주신 사랑방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쟁이 학생들 모두 방학기간을 지혜롭고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카세트테이프, 올드 스타일

며칠 전에 윗집에 사는 예나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내용인 즉은 카세트테이프를 녹음할 수 있는 데크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위아래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다가 이렇게라도 연락을 해주니 반갑고 좋았다. 이래저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았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것을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감성이 있다고 말을 한다.

본래 옛날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서 한 칸에 짐짝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다.. 가족력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고향 집에도 사용하지 않는 옛날 물건들이 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저마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어서 버리지 못하고, 약간만 손보면 작동을 하기에 부품으로 갖고 있기도 하기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중고거래로 장만하고 처남이 가지고 있던 카세트테이프를 받아왔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소리가 잘 났다. 카세트테이프를 보고 들어보며 과거를 잠시 여행했다.

추워진 날씨에 카세트테이프를 틀어보니 성탄절 느낌이 났다. 주로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성탄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길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잘 듣지 않게 된 것 같다. 또 성탄절과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성탄카드를 쓰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주고 받는다. 주고받는 것은 비슷한데 그 당시의 기대와 설렘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성탄카드로 마음을 담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 시간은 정성과 마음을 담는 다는 것을 요즘에서 더 느끼게 된다. 현 상황에 맞추어 이번 연속기도에는 성탄카드에 마음을 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눈이 내리면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과 눈싸움도 하고 짧게 썰매를 끌여주기도 했다.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달빛을 반사하는 쌓인 눈과 가로등 아래로 내리는 눈들이 성탄절을 더 떠올리게 한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저녁이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사도행전 10장 30-35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지진 피해자와 안전을 위해>
14일 화요일에 제주도에서 4.9 지진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 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고리 지각대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4일에 7.3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고, 지난 4일에는 화산이 폭발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커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일본비전공동체>
(1) 제이바(Japan Business as Mission Academy) 훈련과 재정을 위해
(2) 일본비전교회의 2대 담임목사를 창립 15주년인 2023년 3월에 세우는 것을 위해
(3) 오사카비전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공동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감사를
(2)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받는 지체가 없도록
(3) 주님 오신 대강절을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전 무림리의 겨울을 되찾은 듯 합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날씨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십자가 동산에 트리장식이 반짝이는 모습이 화이트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 늘어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행사도 취소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 학교는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종강발표회를 했습니다. 멧쟁이학교는 학생들은 지난 주간 방학에 들어갔고, 학부모 면담이 한 주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꾸러기는 다음 주에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학기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재훈 목사 >